

# 인도 그림기행 ①

그림·글 이호신

## 무명의 터널을 지나며

뭄바이의 밤과 인도문



◇인도문(15×20cm).

대합실 간디 모습에서 인도의 훈향 느껴  
검은대지 여명과 함께 1500만 인구 부산  
인도문, 식민지 과거 잔재·유물로 남아

### 새벽바람 속에서 여행은 시작되고...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고, “세상에서 가장 멀고 어려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길인데 팔십 평생이 넘도록 아직 온전히 가슴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어느 성직자의 겸허한 고백이 이순간 간단없이 가슴에 물결쳐 온다.

하지만 육신의 몸을 받아 영혼의 귀를 지닌다는 것이 어찌 귀하지 않을까. 끝없이 ‘열린문과 흐르는 길’의 도정에서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산고의 깨침을 얻으리라. 그 깨달음은 곧 진리를 발견하는 눈이다. 우리는 무명(無明)의 터널 속에서 그 빛을 찾아, 진리의 숲을 향해 떠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길은 새로운 경험이다. 놀라움과 경이, 갈등과 고통을 자초하며 또 다른 세계로 빠져드는 현상을 넘어선 본질 탐구다. 지구촌 인류애의 이웃으로, 오늘을 있게 한 과거의 역사와 종교, 예술과 삶의 나이트를 헤아리는 추체험의 재발견이다.

따라서 ‘인도로 가는 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행자 자신의 지난 나날의 가감 없는 반추. 그 두려움 속, 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면서 자연 눈을 감는다. 그런데 웬 일인지 가슴 속 밀바닥 희미한 곳에서 아련한 불빛이 치밀어 오른다. 알 수 없는 감회와 눈물이 끝내 북받친다. 잠으로 오랜 기다림이다.

잊혀져 인연공함을 떠나 밤새 타이베이, 하노이, 다카, 킬카터틀 경유 인도땡 뭄바이에 내린 시간이 새벽 2시 25분(한국 시간은 5시 50분). 옛 수도승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오천축국(五天竺國)으로 명명한 인도를 몇 달에 걸쳐 걸어왔건만 아홉 시간이 채 못 되어 날아왔으니 이 무슨 신통력의 세상이인가.

대합실에 걸린 간디의 모습에서 인도의 훈

향이 느껴진다. 일행을 맞는 현지인이 꽃 목걸이를 걸어준다. 정다운 인사가 긴장을 풀어주며 싸늘한 대기속에 꽃내음이 감미롭다. 첫 경험은 늘 새로운 자극으로 고단함을 이겨낸다. 새벽 별이 떠 있는 뭄바이 시내 풍광이 한 눈에 들어와 화첩을 낀 손이 벌써 마려워 오고...

낡은 건물, 무너진 담장, 무질서한 간판이 희뿌연게 드러나며 야자수와 뾰족한 첨탑 건물들이 검은 실루엣으로 얼비친다. 아니 어느 풍경은 성지가 되어 은하의 불빛아래 새벽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눈여겨 살펴보면 마치 연극무대 세트같이 황량하고 뒷골목처럼 음영이 깊다.

차가운 길거리에 널브러진 수많은 사람들. 꾸부리고, 꺾이고, 서로 기대고, 아예 자리를 깔고 누운 이들이 차창밖에 연이어 드러난다. 보따리와 이부자리를 챙겨 터를 잡은 곳에 천막도 눈에 띄니 저들의 삶은 곤고한 저 자리에서 어제도 오늘도 숨쉬고 있었으리라.

비행시간 내내 어둠의 터널을 빠져 나오려 애쓴 여행자의 소회가 다시 또 도리끼질 한다. 무명(無明)이다.

시차에 잘 적응치 못하는 탓에 새벽잠을 털고 숙소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뭄바이의 첫 인상은 음울한 감상에 비껴 가는 끈끈한 바람결이다. 그러나 그 바람속에서도 검은 대지위로 여명은 밝아오고 동녘이 터져왔다.

텔리에서 18시간 기차를 타고 달려왔다는 라전 싱(RAJAN SINGH, 26)은 텔리대학을 졸업한 청년으로 이번 인도여행의 길라잡이다. 첫 인상이 준수한 외모와 순박함을 갖춘 탓에 더듬거리는 한국말에도 금방 친근감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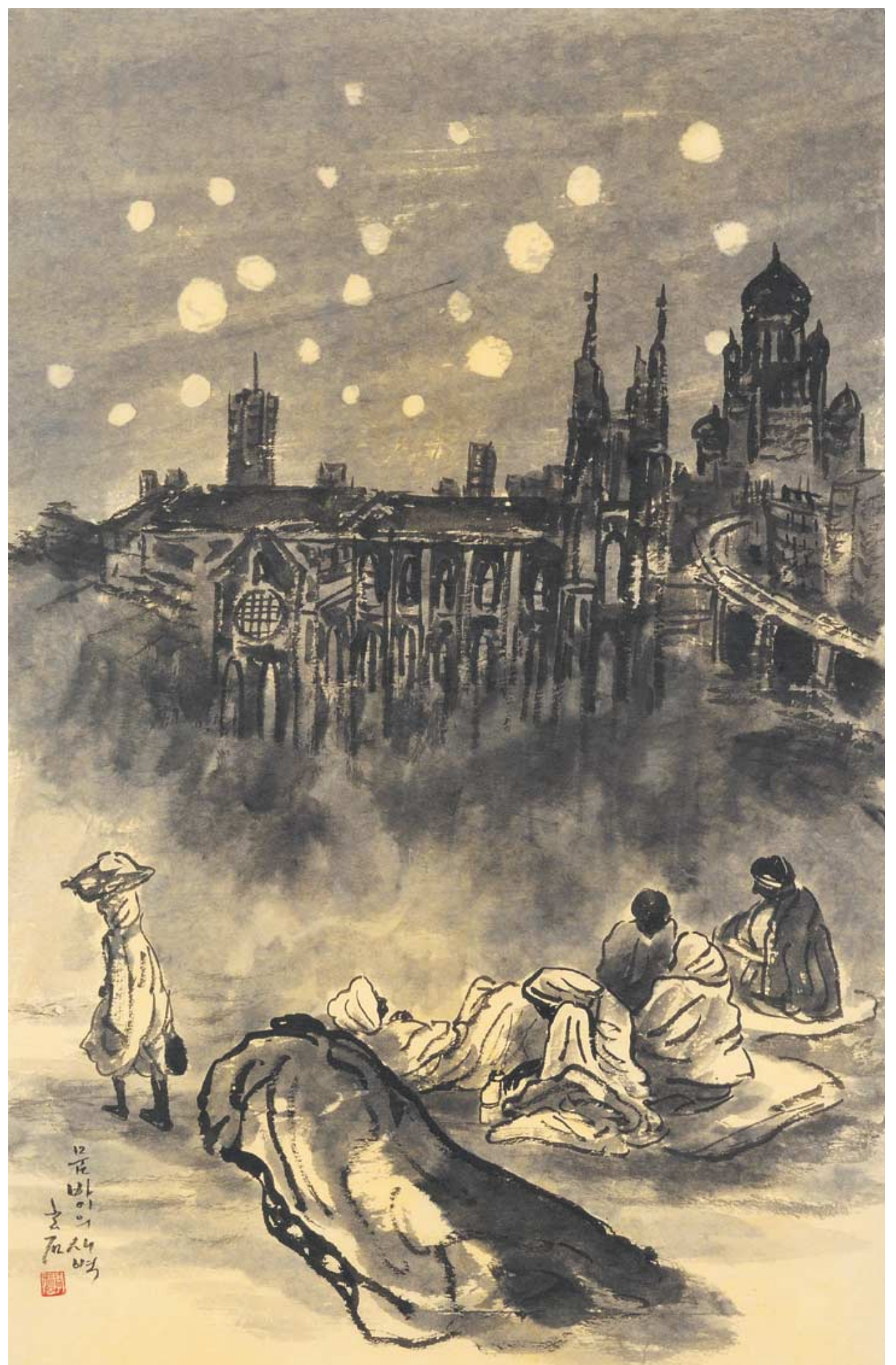
아침길, 인구 1500만 명이 모여산다는 뭄바이는 매우 부산하다. 거리에 잦은 영화간판은 헐리우드 못지 않게 영화 제작 열이 높다는 반증인데 즐비한 오토리사, 소형택시는 하나같이 검은색에 노란 지붕을 하고 있다.

백베이 해안을 끼고 소위 목걸이처럼 생겼다는 머린 드라이브 코스는 야자가로수와 함께 낭만적이고 반대편 광장에서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퍼레이드 준비에 열을 맞추고 있다. 독립기념일(1월26일)을 위해 한달 전부터 연습중이란다. 한국의 LG간판, 현대자동차가 반가운데 차는 버킷경주 같은 빅토리아역을 거쳐 시내를 경유, 타지마할 호텔 앞 광장 인도문에 이른다.

뭄바이란 포르투갈어로 ‘좋은 항구’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사연은 남의 땅을 함부로 여긴 지배자의 논리가 깔려있다. 즉 서구세력이 맨 처음 인도에 진출했던 포르투갈 공주가 영국왕실로 시집가면서 결혼선물로 남겨 준 항구였다니 말이다. 이로써 뭄바이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관할하게 된 이래 서해안 제1의 무역항 역할을 했다. 여기에 상징적이고도 기념적인 유물이 소위 ‘인도문(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이다. 이같은 비유는 백베이 해안마저 ‘공주의 목걸이’로 이야기되며 오늘날 관광 상품으로 회자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아라비아해를 향해 선 인도문은 영국왕(조지 5세)의 인도 방문을 기념해 1911년 건축한 것으로 식민지 시대에 잉태된 쓰라린 과거의 잔재요, 역사적 유물로 남아있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실크로드여행사 · 안성 도피안사



◇무명(無明) 뭄바이의 새벽(75×113cm).

##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특집사보 발간

## 불교설법전서 (1~8권)



### 기념책자 견본

- 불교법요식소
- 부처님은 누구인가?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부처님의 탄생과 의미
- 부처님의 성도와 열반
- 부처님 오신 날 왜 연등불을 밝히나?

규격 신국판 | 분량 28쪽(표지포함)



### 특집사보 견본

- 불교발원론
- 부처님의 탄생과 그의미
- 부처님 전생이야기
- 민화로 보는 불교설화
- 재미있는 교리공부
- 불교환경운동과 수행
- 불교와의 인연이야기
- 불교상식 등

규격 4 x 6배판(16절) | 분량 36쪽(표지포함)

기념책자	100부	300부	500부	1,000부	2,000부	3,000부
		65,000	195,000	312,500	600,000	1,000,000
특집사보	100부	200부	300부	400부	500부	1,000부
		156,000	234,000	351,000	455,000	559,000

\* 특집사보와 기념책자 표지에는 사찰명, 주소, 주지스님 말씀, 사찰소식, 초파일 행사식소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 부처님 오신 날 기념책자

사찰에서 행사 때마다 만들어 오던 전단은 경제적인 부담, 준비하는 번거로움, 거기에다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법연구원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초파일 기념책자를 만들어 행사용 팸플릿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념책자는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읽고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알차게 꾸몄습니다.

### 부처님 오신 날 특집사보

매월 발간해 오고 있는 ‘설법’지에 초파일 특집 지면을 할애하여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각 사찰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사보 겸 초파일 행사용 책자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환희로운 부처님 오신 날!

설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초파일 특집사보를 통해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의 뜻을 널리 펴시다.

### “초파일 기간 특별 할인 실시”

행사·교리·불사·비유설화·시사 등의 주제별로 항목을 분류, 합본 제작하여 발간된 책. <불교설법전서>는 스님과 법사님의 필독서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 1권(50쪽) 3만원
- 2권(58쪽) 4만원
- 3권(612쪽) 4만원
- 4권(788쪽) 4만원
- 5권(720쪽) 4만원
- 6권(816쪽) 5만원
- 7권(894쪽) 5만원
- 8권(790쪽) 5만원

### ■ 도서출판 솔바람의 책들

- 불교설법전서  
설법연구원 편 | 각 권 30,000~50,000원
- 참회경전  
도법 편저 | 3,000원
-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  
반영규 저음 | 7,000원
- 천수경  
윤오연 편저 | 6,000원
- 신묘장구대라니 강해  
임근동 저음 | 10,000원
- 불사 및 기도안내문 모음집  
설법연구원 편 | 10,000원
- 불교사경집  
설법연구원 편  
예불·반야삼경 3,000원,  
지장경 5,000원
- 불교지도자론 I  
설법연구원 편 | 20,000원
-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송한우 역저 | 12,000원
- 실험처럼 살아라  
페마 최진 저음 · 진우기 옮김(공·발간예정)
- 마음을 밝히는 60가지 이야기  
김정열 · 방경일 공저(공·발간예정)